

(121013 중앙신도회장 이취임식 치사)

치 사

중앙신도회 제24, 25대 회장 이취임식을 맞아 발원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느 날보다 종도에게 뜻 깊은 날입니다. 지난 7년여 동안 중앙신도회를 이끌어 오신 김의정 회장님과 뒤를 이어 4년간 중앙신도회를 이끌어 가실 제25대 이기흥 회장님이 불전에서 고불하며 여기 모인 사부대중께 원력과 발원을 알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김의정 회장님은 선대의 남다른 신심에 본인의 돈독한 원력을 더하여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신도회관 건립불사를 원만하게 성취하였고, 전통문화 계승과 함께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는 일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종단의 위상을 드높인 선업이었기에 함께했던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5대 이기흥 회장님은 그동안 많은 체육인 불자들을 발굴하면서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지난 8월에 열린 런던올림픽 선수단장으로 체육인 불자들의 능력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국민에게는 환희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의 든든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력하는 모범은 잘 알려진 덕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 종단의 큰 울타리 안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은 종단으로도 큰 의미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자성과 채신 결사를 추진하며 단계적 계획속에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며, 사부대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종단을 위해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신도회의 골간 조직인 교구신도회와 사찰신도회 등, 신도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불자 스스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중앙신도회 25대 집행부는 ‘신도조직 활성화, 불교적 인재양성, 가르침의 사

회적 회향'을 주요한 목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목표는 신임 회장님이 갖춘 특유의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고, 우리 종단과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종단이 기대하는 중앙신도회의 활성화와 역할은 이기흥 회장님이 가진 원력과 공심으로 충분히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신도회 임원 및 직원들 또한 신임회장님을 성심으로 보필하고, '신도회 발전이 곧 종단과 불교의 발전'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하면서 종단과의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임 중앙신도회장 취임을 계기로 부처님 제자들이 신심과 원력으로 종단과 불교가 신뢰받고 존경받는 뜻깊은 불사를 원만하게 성취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임 김의정 회장님의 아름다운 공덕회향과 이기흥 회장님의 활발한 취임을 거듭 축하하며, 전국 신도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기2552(2012)년 10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총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